인문연구 제90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0, No. 1, pp.159~188
http://dx.doi.org/10.21211/JHUM.90.6

고대 중국인의 꿈 기록
『몽점일지』(夢占逸旨)에 대한 한 연구*

- 『몽점일지』 외편(外篇)을 중심으로

유강하**

〈차 례〉

1. 고대 중국의 꿈과 『몽점일지』
2. 꿈, 점(占)과 해석 사이
3. 『몽점일지』 외편의 꿈과 해석
 1) 상징
 2) 탁자(拆字)
 3) 해음(諧音)
 4) 복합해석
4. 꿈해석의 열린 가능성

【국문초록】

고대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꿈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꿈을 다루는 방법을 궁구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전문가

* 2019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 江原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助敎授

를 두었으며, 꿈을 분류하고 기록해왔다. 이미 주대(周代)부터 점몽가가 있었고,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수십 권의 몽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몽서의 경우, 대부분 일실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고대의 몽서 가운데서도 『몽점일지』는 내용이 비교적 완정하게 남아 있어, 고대의 꿈 기록의 면모를 확인하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평가되고 있다.

『몽점일지』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몽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인 '점'의 의미를 뛰어넘어, 몽자(夢者)의 심리와 무의식을 드러내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다. 고대의 꿈해석은 주술의 영역에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등을 포함한 인문(人文)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해석의 주체로는 점사(占師), 점몽자(占夢者), 술자(術者) 등이 있는데, 그 외에 몽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주위 사람과 박학다식한 지식인 역시 꿈해석의 주체가 되었다. 꿈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상징성을 이용한 방법, 탁자(拆字)와 해음(諧音)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

『몽점일지』는 고대 중국의 풍부한 꿈과 꿈해석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꿈에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다. 꿈은 몽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상징문화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텍스트이다. 『몽점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문화는 꿈을 해석하는 고유한 방식을 갖고 있다. 고대 점몽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는 다양한 꿈해석의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동서양 꿈 비교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몽점일지』, 꿈, 몽자(夢者), 점몽자(占夢者), 꿈 해석, 상징성, 탁자(拆字), 해음(諧音)

1. 고대 중국의 꿈과 『몽점일지』

고대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꿈에 관심을 가져왔다. 오래 전부터 꿈을 다루는 방법을 궁구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전문가를 두었으며, 꿈을 분류하고 기록해왔다.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 『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 『당서』(唐書), 『송사』(宋史) 등에 기록된 점몽서(占夢書)만도 수십 권에 이른다.[1] 『수서』에 기록된 점몽서부터 찬자(撰者)의 이름이 일부 기록되기 시작했고, 당대(唐代) 이후의 점몽서는 찬자(撰者) 또는 편자(編者)가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가 많다. 책의 제목에는 '점몽'(占夢) '몽서', '해몽'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 책의 대략적인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후대로 갈수록 책의 내용도 양적으로 풍부해진 것으로 보인다. 명대(明代)에 출판된 『몽림원해』(夢林元解)의 경우, 34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점몽서의 대부분은 서지사항 정도만 남고 내용은 일실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 면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내용까지 남겨진

---

1) 저공생(褚贛生)은 문헌에 소개된 몽서 22권을 소개하고 있다. 몽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서』「예문지」: 『황제장류점몽』(黃帝長柳占夢), 『감덕장류점몽』(甘德長柳占夢); 『수서』「경적지」: 『점몽서』(占夢書, 京房 撰), 『점몽서』(占夢書, 崔元 撰), 『갈가선인점몽서』(竭伽仙人占夢書), 『점몽서』(占夢書, 周宣 等 撰), 『몽서』(夢書), 『신찬점몽서』(新撰占夢書), 『해몽서』(解夢書), 『잡점점몽서』(雜占夢書); 『당서』(唐書), 『송사』(宋史) 등: 『몽서』(夢書, 盧重玄 撰), 『몽전』(夢雋, 柳燦 撰), 『주공해몽서』(周公解夢書), 『점몽서』(占夢書, 王升 撰), 『교정몽서』(校定夢書, 陳襄 校定), 『신석응몽서』(神釋應夢書, 紹端 撰), 『몽응록』(夢應錄, 詹省遠 撰); 『국사경적지』(國事經籍志), 『명사』(明史)「예문지」(藝文志), 『사고총목제요』(四庫總目提要): 『몽점일지』(夢占逸旨, 陳士元 撰), 『고금응몽이몽전서』(古今應夢異夢全書, 張幹山 撰), 『기몽요람』(紀夢要覽, 童軒 撰), 『몽점유고』(夢占類考, 張鳳翼 撰), 『몽림원해』(夢林元解, 陳士元 撰, 何棟如 輯)" 褚贛生, 『中國古代夢占』, 九州出版社, 2008, pp. 44-46.

책으로는『점몽서』(占夢書),『몽서』(夢書),『해몽서』(解夢書),『주공해몽서』(周公解夢書),『신주공해몽서』(新周公解夢書),『점몽서』(占夢書),『몽점일지』(夢占逸旨) 정도를 꼽을 수 있다.[2)]

이 중에서도『몽점일지』는 내용이 비교적 완정하게 남아 있어, 고대 꿈 기록의 면모를 확인하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몽점일지』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꿈을 대하는 전반적인 풍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 꿈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이고, 꿈점은 곧 미신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물론 고대 중국의 꿈점을 신비문화의 하나로 소개하고 꿈 점의 역사, 연원, 의미 등을 소개한 연구도 있지만,[4)] 꿈 점을 미신으로 상정하고 접근한 연구도 적지 않다. 고대 중국의 꿈을 망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문영(劉文英)은 꿈점을 미신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고,[5)]『고대 중국의 몽점』의 저자인 저공생(褚贛生) 역시 점몽은 미신이며 점몽서 역시 미신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6)]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꿈을 모티프로 한 몽유소설(夢遊小說)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대의 꿈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 褚贛生, ibid., pp. 46-48.

3) 劉文英, 하영삼·김창경 옮김,『꿈의 철학: 꿈이 미신, 꿈의 탐색』, 동문선, 1993, p. 61.

4) 何躍青 編著,『占夢文化』, 外文出版社, 2011.

5) 劉文英, ibid, 이 책의 원제는『꿈의 미신과 꿈의 탐색: 중국 고대 종교철학과 과학의 한 측면(夢的迷信與夢的探索:中國古代宗教哲學和科學的一個側面)』(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이다. 劉文英은 다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꿈은 곧 미신'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劉文英,『星占與夢占』, 中央編譯出版社, 2008.

6) "고대 중국에서 점몽(占夢)은 일종의 미신활동이었다. 점몽서[를 펴낸] 목적 역시 이러한 미신을 선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복을 구하며 흉한 것을 막는 것에 있었다." 褚贛生, ibid., p, 48.

『몽점일지』에 대한 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의 꿈과 점몽에 대한 국내의 연구 역시 많지 않고,[7] 고대의 꿈을 체계적으로 망라한 『몽점일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선행연구로는 「『夢占逸旨』의 인문학적 의의 : 「古法篇」을 중심으로」(강종임, 『중국어문학논집』(65), 2010), 「전통 시기 중국 문인의 관계 지향-『몽점일지(夢占逸旨)·과갑편(科甲篇)』을 중심으로」(강종임, 『중국어문학』(79), 2018), 「"어떤 꿈이 참이 아니겠는가?[何夢非眞]"-『夢占逸旨』「內篇」에 드러난 진사원의 꿈 인식 연구」(유강하, 『외국학 연구』(49), 2019)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몽점일지』를 소개하고, 고대 중국의 몽점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은 『몽점일지』 내편(10편) 가운데 한 편을, 두 번째 논문은 외편(20편) 가운데 한 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세 번째 논문은 내편의 일부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진사원의 꿈 인식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세부적, 개별적 연구로서 『몽점일지』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하고 있다.

『몽점일지』의 분량은 적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방대하다. 꿈에 대한 이론편이라 할 수 있는 내편(內篇) 10편, 꿈 사례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외편(外篇)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짧은 연구논문으로는 전체를 망라하기 쉽지 않다. 이 논문 역시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외편에 소개된 꿈 사례와 꿈 해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7) 조윤래, 「『장자(莊子)』와 점몽서(占夢書)」, 『道敎學硏究』(10-1), 1992; 강종임, 「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1)」, 『中國小說論叢』(24), 2006; 이연희, 「六朝時期 占夢文化와 宗敎-六朝 夢幻故事를 중심으로」, 『道敎文化硏究』(25), 2006; 강종임, 「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2)」, 『中國小說論叢』(25), 2007; 최진묵, 「중국 고대 夢占의 논리와 그 사회적 기능」, 『중국고중세사연구』(16), 200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몽점일지』에 드러난 꿈에 대한 고대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꿈을 다루는 방식과 차이를 드러낸다. 오늘날 한 개인이 꾸는 꿈은 정신분석이나 심리분석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한 개인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몽점일지』에 소개된 고대 중국의 꿈은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몽점일지』에 대한 연구는 고대 중국에서 꿈을 다루었던 방식의 이해, 중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진 고유한 꿈 해석 방법의 탐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몽점일지』에 기록된 꿈과 꿈의 해석 방법은 현재의 꿈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국적(동양적) 요소가 강하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부분은 『몽점일지』 외편이다. 외편에는 꿈에 자주 나타나는 사물이나 유형이 20편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의 편에는 해당 꿈 사례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몽점일지』 외편에 기록된 꿈의 구체적 내용 분석을 통해 중국적 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고대 중국의 고유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동서양 꿈 해석의 방법, 상징성 등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고, 꿈을 통해 무의식을 탐색하려는 근대 이후의 서구식 꿈 해석 방법과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동서양 꿈의 비교연구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꿈, 점(占)과 해석 사이

『몽점일지』에서 말하는 꿈과 꿈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점'의 함의와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고대 중국의 꿈 기록인 『몽점일지』

에서는 '꿈점'(夢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진사원(陳士元)이 꿈에 대해 가진 분명한 생각은 꿈은 점(占)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몽자가 꾼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고대 중국의 꿈 해석 전문가로는 점몽자(占夢者), 점자(占者), 점사(占師), 술자(述者) 등이 있었다.

『태평광기』(太平廣記)의 기록이다. 진(晉)나라 함화(咸和) 년간 초에 서정(徐精)이 먼 길을 떠났다. 아내와 동침하는 꿈을 꾸었는데, [아내가] 임신했다. **점몽자(占夢者)**가 말했다. "[이 아이는] 무사(巫師)가 되고, 죽어서는 사공(社公)이 될 것입니다."

(『몽점일지』「산천편」)[8] (밑줄, 인용자 강조)

『당서』(唐書)의 기록이다. 회창(會昌) 년간 말엽에 정광(鄭光)이 큰 수레에 해와 달을 싣고, 네거리 중앙에 가서 육합(六合)을 비추는 꿈을 꾸었다. …… [정광이 잠에서] 깨어나 [점자에게] 점을 치자, **점자(占者)가** 말했다. "그대는 갑자기 귀하게 될 것이오."

(『몽점일지』「일월편」)[9]

『이원』(異苑)의 기록이다. 양현(梁顯)이 과거에 응시하기 열흘 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개고기 한 조각을 주는 꿈을 꾸었다. 양현은 [꿈에서 깬 후] 유쾌하지 않아 **술자(術者)에게** 물었다.

(『몽점일지』「자획편」)[10]

---

8) "『太平廣記』曰, 晉咸和初徐精遠行, 夢與妻寢有身. 占夢者曰, '當爲巫師, 死爲社公.'" (『夢占逸旨』「山川篇」)
이 논문에 쓰인 『몽점일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번역을 따르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음을 일러둔다. 陳士元, 김재두 옮김, 『夢占逸旨』, 서울, 은행나무, 2008.

9) "『唐書』曰, 會昌末, 鄭光夢御大車載日月, 行中衢, 輝照六合. 寤而占之, 占者曰, '君暴貴.'" (『夢占逸旨』「日月篇」)

10) "『異苑』曰, 梁顯進選前十日, 夢人賜犬肉一片. 顯不悅以問術者." (『夢占逸

꿈은 실체가 없지만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위의 예문에 소개된 서정, 정광, 양현은 기이한 꿈을 꾼 뒤,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사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주대(周代)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관리가 있었다.[11] 몽점을 하는 관리들은 꿈을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지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진한대(秦漢代)에 이르러 꿈 점이 공적인 영역에서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꿈 점은 민간에서 매우 유행하게 되었고,[12] 꿈 점을 해석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꿈 점의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도 있다. 탁자(拆字) 해석에 능했던 조직(趙直), 높은 해석 적중률을 보였던 위(魏)나라의 주선(周宣), 술수(術數)에 능했던 색담(索紞), 해몽에 뛰어났던 북위(北魏)의 양원신(楊元愼), 오대(五代)의 양정식(楊廷式), 생몰년이 불분명한 장중(張中) 등이 대표적인데,[13] 이 가운데서도 색담은 『몽점일지』에 여러 번 언급된 바 있는 뛰어난 꿈 해석 전문가였다.[14]

旨』「字劃篇』)

11) 『주례』(周禮)「춘관종백」(春官宗伯)편에 따르면, 점술이나 제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따로 두고 있었는데, 복사(卜師) 4인, 점인(占人) 18인, 서인(簭人) 9인 외에, 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점몽(占夢) 8인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준영 해역, 『周禮』, 자유문고, 2014, pp. 286-292.

12) "진한대에 이르러 종교 활동이 많아지고, 몽점은 그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었다. 관제(官制)에도 점몽하는 관리가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영역으로 이동한 몽점은 풍수, 관상, 팔괘 등과 결합하며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褚贛生, ibid., p. 25.

13) 褚贛生, ibid., 2008, pp. 38-43. ; 何躍青 編著, ibid., pp. 82-88.

14) 색담(索紞)은 『몽점일지』에 가장 많이 언급된 점몽가 가운데 한 명이다. 『진서』(晉書)에는 그가 태학에 들어간 후, 한 노인으로부터 꿈 점을 치는 방법을 배운 후, 꿈 점을 잘 치게 되어 사람들이 배움을 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진서』의 기록이다. 색담은 점몽을 잘했다. 태수 음담이 색담에게 점서를

그런데 '몽점'의 '점'이라는 용어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신비주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점'이라는 용어는 고대의 꿈/꿈점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이들을 주술적·신비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고대의 몽점은 많은 내용이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꿈 점은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이 이를 미신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진사원이 말하는 '점'은 무속 또는 전통적인 주술적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꿈 해석은 점몽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열려있었다. 박학다식한 지식인 또는 몽자(夢者)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꿈을 해석하였고, 때로 꿈을 꾼 몽자(夢者) 자신도 꿈 해석의 주체가 되었다. 심지어 꿈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하여 해석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읍강(邑姜)이 꿈에서 우(虞)를 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읍강은] **박학다식한 자산(子産)에게** 꿈을 털어놓았다.
>
> (『몽점일지』「종공생」)[15]

> 『좌전』의 기록이다. "문공(文公)의 꿈은 **자범(子犯)**이 점을 쳤으므로, 점몽하는 관리가 없어도 바른 점을 얻었다."
>
> (『몽점일지』「종공생」)[16]

구했다. 색담은 '지난 날, 태학에 들어가 한 어르신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 분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감춘 것이, 은자 같았습니다. 제는 어르신을 따르며 점몽술을 이용하여 헤아려 말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분은] 실제로 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晉書』曰, 索紞善占夢, 太守陰澹徒求占書. 紞曰, 昔入太學, 因老父爲主人, 其人無所不知. 匿姓名有似隱者. 紞從父老問占夢之術, 審測而言, 實無書也."(『夢占逸旨』「古法篇」)

15) "邑姜之夢虞, 實述於博物之子産."(『夢占逸旨』「宗空生」)

16) "左傳文公之夢, 子犯占之, 不必占夢之官, 乃得占也."(『夢占逸旨』「宗空生」)

『좌전』의 기록이다. …… [조영(趙嬰)이 꿈을 꾸었다.] 조영은 [잠에서 깨어나자] 사람을 시켜 사정백에게 꿈[의 해석을]을 물었다. 사정백이 대답하였다. "알지 못합니다." 조영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던 사람에게** [꿈을] 말하였다.

(『몽점일지』「종공편」)[17]

『진서』의 기록이다. 함화 3년, 유요(劉曜)는 밤에 금빛 얼굴에 붉을 입술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 아침에 **공경(公卿)을 소집하여, [꿈에 대해] 의논**하였다. 모두 길한 꿈이라고 하였다.

(『몽점일지』「신괴편」)[18]

꿈 해석은 몽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주변인들에게 열려있었다. 위의 사례 외에 꿈 해석을 의뢰받았던 인물로는 주부(主簿) 이의(李毅, 「器物篇」), 엽광원(葉光遠, 「形貌篇」), 고력사(高力士, 「科甲篇」), 적인걸(狄仁傑, 「器物篇」), 왕생(王生, 「器物篇」), 사은(史鼒, 「神怪篇」)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관리도 있었고, 특정한 직책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도 보인다.

점몽가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정신이나 내면의 탐색보다 삶을 이해하고, 방향을 가늠하는 도구 또는 영역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몽점' 또는 '점몽'과 관련하여 '묻다'(問), '점치다'(占), '풀다/해석하다'(解), '논의하다'(議) 등의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몽점일지』에서 말하는 점(占)의 의미는 종교나 주술 등 신비주의적 영역을 뛰어넘어 인문학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점몽'이나 '몽점',

17) "『左傳』曰, …… [趙]嬰使問士貞伯, 貞伯曰, 不識也. 旣而告其人." (『夢占逸旨』「宗空篇」)

18) "『晉書』曰, 咸和三年, 劉曜夜夢三人金面丹脣, …… 旦召公卿議之, 咸以爲吉." (『夢占逸旨』「神怪篇」)

‘해몽’ 등의 용어보다 ‘꿈해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사원이 『몽점일지』에서 꿈해석의 중요성, 꿈을 해석함에 있어 전문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꿈과 현실이 밀접하게 조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법편」(古法篇)에서 “술업(術業)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자의 [해석은] 징험하지 않다. 점몽의 술(術)은 반드시 전문적으로 익혀야만 징험함이 있다”[19]고 언급한 바 있다. 진사원은 꿈해석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몽점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꿈해석의 주체는 점자・점몽자・술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범, 조직, 고력사, 적인걸 등 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스스로 꿈의 해석주체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20] 특히, 스스로 꿈을 해석하여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바꾸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정립(程立)은 해를 받들고 선 꿈을 꾸고 이름을 욱(昱)이라고 고쳤다.
> 귀씨(歸氏)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꿈을 꾼 뒤 [이 꿈이 아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여 양(暘)이라고 이름하였다.
>
> (『몽점일지』「일월편」)[21]

꿈을 꾸고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바꾸었다는 꿈 사례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22] 이러한 행위는 꿈에서 본 상서로

---

19) “術業不專者不驗. 占夢之術, 必專習驗.” (『夢占逸旨』「古法篇」)

20) 꿈해석은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하여 스스로 점을 칠 수 있었다. 은왕(殷王)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점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 劉文英, 『星占與夢占』, 中央編譯出版社, 2008, pp.109-110.

21) “程立夢捧日以立, 而更名曰昱. 歸氏夢朝日初出而名男曰暘.” (『夢占逸旨』「日月篇」)

22) 꿈을 꾼 후 이름을 정하거나, 이름을 고친 경우는 장천(張闡), 조개(趙槩), 정권(鄭權)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夢占逸旨』「神怪篇」)

운 징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거나, 꿈에 예견된 불길한 징조를 피하기 위해 현실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꿈과 현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몽자의 태도이다. 고대 중국에서 꿈은 몽자의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미래는 실현될 확률이 높은 일종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악몽을 꾸고 제사를 지내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진사원은 『잠부론』을 인용하여 길몽과 흉몽의 실현은 몽자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흉몽을 꾸었더라도 현실에서 근신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 흉액을 피할 수 있고, 길몽을 꾸었더라도 자만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사원은 『주역』(周易)의 기록을 인용하여, 결국 "항상 삼가고 모든 일을 덕으로 맞이했을 때, 모든 일에서 길함(吉)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23] 꿈을 꾸고, 꿈해석 전문가의 해석을 거친 후, 몽자가 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몽점일지』에 드러난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에서 꿈은 단순히 신비스러운 점술의 영역이 아니라 몽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하고 대비하며,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호로서 인문(人文)의 영역이었다.

3. 『몽점일지』 외편의 꿈과 해석

고대 점몽서(占夢書)의 분류는 대체로 천·지·인(天地人)의 구

23) 『夢占逸旨』「感變篇」

분을 따르는 고대 유서(類書)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천(天)에는 해와 달, 별, 비와 바람, 오곡 등이 포함된다. 지(地)에 관련된 것으로는 산천, 물과 불, 금수, 초목, 육축, 오곡(五谷) 등이 포함되며, 인(人)과 관련된 것에는 옷, 집, 관혼상제, 수명, 과거, 재물 등이 포함된다.[24] 진사원의 『몽점일지』의 분류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진사원이 분류한 외편 20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자편」(天者篇), 「일월편」(日月篇), 「뇌우편」(雷雨篇), 「산천편」(山川篇), 「형모편」(形貌篇), 「식의편」(食衣篇), 「기물편」(器物篇), 「재화편」(財貨篇), 「필묵편」(筆墨篇), 「자획편」(字畫篇), 「과갑편」(科甲篇), 「신괴편」(神怪篇), 「수명편」(壽命篇), 「봉조편」(鳳鳥篇), 「수군편」(獸群篇), 「용사편」(龍蛇篇), 「구어편」(龜魚篇), 「초목편」(草木篇), 「시보편」(施報篇), 「범유편」(泛喩篇)

『몽점일지』 외편의 편명 아래로는 그것이 의미하는 기본적이고 대체적인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 가령, "해와 달은 지극히 귀하게 될 징조이다."[25], "봉황은 어진 새다. …… 기린, 용과 마찬가지로 신령하다. …… 닭은 무관(武吏)인데, 벼슬과 발톱이 있기 때문이다."[26] 등의 설명이 그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외편에 소개된 특정한 사물/상황이 고대 중국문화 속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외편의 모든 편명마다 위와 같은 합리적인 설명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물에 내재된 상징을 통한 해석이 언제나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고대 중국의 꿈해석은 상징성을 통한 해석일뿐만 아

---

24) 褚贛, ibid., p. 44.

25) "日月極貴之徵也." (『夢占逸旨』「日月篇」)

26) "鳳鳥仁鳥也, …… 蓋與麟龍鱗靈矣. …… 鷄爲武吏, 有冠距也." (『夢占逸旨』「鳳鳥篇」)

니라, 탁자(拆字)나 해음(諧音)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외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1. 상징

『몽점일지』에 소개된 꿈속의 하늘, 해, 용(청룡, 백룡, 적룡) 등은 천자와 관련된 꿈인 경우가 많다. 「필묵편」(筆墨篇)에 등장하는 붓, 먹 등은 문재(文才)나 과거 급제와 관련되어 있다. 달(月)에 관한 꿈은 황후나 후비 등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짐승, 조류, 관(棺)이나 귀신, 제기(祭器) 등이 나오기도 한다.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은 그 사물에 내재된 속성과 유사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해나 용에 관한 꿈은 천자나 왕의 출생, 패망 등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많은 동물 중에서도 '뱀'에 관한 상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뱀에 관한 상징성을 따로 살펴보려는 것은, 우선 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적 존재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또한 고대 중국의 꿈에 등장하는 뱀은 서양의 꿈에 나타나는 뱀과 상이한 해석과 상징성을 드러내는 동물로서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몽점일지』에서 "뱀은 용의 종류지만, 그 징조는 다른 것"[27]"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는 뱀과 용을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곤 했다.[28] 용과 뱀은 『몽점일지』의 「천자편」(天者篇), 「수군편」(獸羣篇), 「용사편」(龍蛇篇)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들을 「천자편」에서 모두 소화하지 않고, 「용사편」을 따로 편집한

27) 夫蛇亦龍類, 厥兆不同" (『夢占逸旨』「龍蛇篇」)
28) 劉文英(2008), ibid., p.7.

것은 용과 뱀이 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 상징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뱀은 상서로움(祥)과 상서롭지 않음(不祥)이라는 상반된 상징을 모두 가진 동물이다. 『돈황해몽서』(燉煌解夢書)「용사장」(龍蛇章)에서는 "꿈에서 뱀이 길에 있으면 크게 길하고, 꿈에서 뱀과 호랑이를 보면 부유해지니 길하다. 꿈에서 뱀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 흉하고, 뱀이 가족을 물면 어머니가 쇠약해지며, 뱀이 또아리를 틀면 집이 편안하지 못하다"[29]고 기록하고 있다.

뱀은 또 다른 양가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음(陰, 여성성)-양(陽, 남성성)의 상징이 그것이다. 『몽점일지』「종공편」(宗空篇)에서는 뱀은 여성과 관계된 것으로서, 딸을 낳을 상서로운 징조라고 설명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뱀이나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고, 땅(물)에 가까운 동물은 음(陰)을 상징하므로, 꿈에서 뱀이나 물고기를 보면 딸을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다.[30] 『시경』(詩經)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아래에는 부들자리, 위에는 대자리를 깔고 편안히 잠이 드네.
> 잠들었다가 깨어나, 내 꿈을 점치네.
> 길몽이 무엇일까? 큰곰과 큰뱀과 뱀의 꿈을 꾸었다.
> 태인이 점을 치니, 곰과 큰곰[의 꿈]은 아들을 낳을 좋은 징조다.
> 큰뱀과 뱀[의 꿈]은 딸을 낳을 좋을 징조로다.
>
> (『시경』「소아・사간」)[31]

---

29) 姚偉鈞, 『神秘的占夢』, 廣西人民出版社, 2004, p.118.

30) 何躍青, ibid., p.136. 호랑이나 곰은 양(陽)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남성성을 상징한다.

31) "下莞上簟, 乃安斯寢. 乃寢乃興, 乃占我夢. 吉夢維何? 維熊維羆, 維虺維蛇.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詩經』「小雅・斯干」)

고대 중국문화 속의 뱀은 일찍이 양(陽)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음(陰), 달, 습함, 물 등의 대응물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뱀은 여성성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뱀은 여성성의 상징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용사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당종(唐琮)은 뱀이 몸을 감싸는 꿈을 꾸고 초서(草書)를 만들었다.
> (『 몽점일지」「용사편」)[32]

> 범연광(范延光)은 뱀이 배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황제가 되겠다는] 다른 뜻(異志)을 품었다.
> (『몽점일지』「용사편」)[33]

> 『진서』(晉書)의 기록이다. 이웅(李雄)의 어머니 나씨(羅氏)는 큰 뱀이 몸을 휘감는 꿈을 꾸었다. 임신하고 14개월이 지나 [이웅을] 낳았는데, 그는 [훗날] 촉(蜀)에서 황제를 참칭하였다.
> (『몽점일지』「용사편」)[34]

「용사편」에는 큰뱀의 꿈을 꾸고 초서(草書)를 만든 당종의 꿈, 뱀 꿈을 꾸고 황제가 되려는 뜻을 품은 범연광의 꿈, 실제로 황제를 참칭한 이웅의 태몽을 소개하고 있다. 당종의 꿈은 긍정적인 꿈이지만, 범연광과 이웅이 꾼 꿈은 '용이 되지 못한 뱀'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이들은 황제가 되려는 뜻을 품거나, 황제를 참칭했다는 점에서 상서로운 결과로 해석되지 않으며 여성성과도 거리가 멀다. 위의 꿈들은 뱀에 내함된 양가적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

---

32) "唐琮夢蛇繞身, 而作草書." (『夢占逸旨』「龍蛇篇」)
33) "范延光夢蛇入腹, 而蓄異志." (『夢占逸旨』「龍蛇篇」)
34) "『晉書』曰, 李雄母羅氏, 夢大蛇繞身. 遂有孕十四月而生. 後僭帝於蜀." (『夢占逸旨』「龍蛇篇」)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점일지』에 소개된 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중국 의 꿈에 나타나는 뱀이 양-남성성과 음-여성성과 모두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뱀이 양-남성성과 연관된 경우, 뱀은 용의 다른 형태로서 황제나 제왕과 깊이 연관된다. 또한 뱀이 음-여성성과 관련된 경우, 뱀은 후비와 관련되거나 딸을 낳을 태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꿈에 등장하는 뱀에 대한 해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물은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과 상징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풀이하는 꿈해석은 바르지 않을 수 있다. 몽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주변인들이 꿈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사원은 꿈에 나타나는 사물과 형태는 유형화할 수 있지만, 폭넓고 다양한 해석의 방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시경』에서 뱀은 여성의 상서로움이라고 했지만, 어찌 그렇기만 하겠는가?"[35]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대 중국의 꿈에 나오는 뱀이 서양의 보편적인 상징성, 해석과는 다른 측면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36] 이러한 특징은 향후, 동서양의 꿈을 비교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5) "『詩經』謂, 虺蛇爲女子之祥, 豈盡然哉." (『夢占逸旨』「龍蛇篇」)

36) "(1)뱀은 악의 원천을 상징한다. (2)뱀은 치유 원기회복,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 고대 신화에서 뱀은 허물을 벗고 다른 피부가 자라게 하는 능력 때문에 불멸성을 상정한다. 뱀은 그리스-로마의 의약의 신에 대한 표상이다. 그리고 입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은 출생, 죽음, 그리고 재출생의 순환에 대한 고대적인 상징이다. (3) 뱀은 성, 정신에너지나 자연의 능력, 직관적인 지혜, 무의식을 상징한다." 에릭 에크로이드, 김병준 옮김,『꿈 상징 사전』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221.

3.2. 탁자(拆字)

탁자(拆字)는 측자(測字)나 파자(破字), 해자(解字)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어 왔다.[37] 이러한 방법은 한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한자를 쪼개어 몇 개의 편방으로 나누고, 편방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결합하여 의미를 만듦으로써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후한대(後漢代)부터 점몽가나 한자의 분해-결합에 능한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송대(宋代)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38] 탁자(拆字)를 이용한 꿈해석의 방법은 외편의 여러 편에 산재되어 있지만, 「자획편」(字劃篇)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편방과 필획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했던 한자의 특성을 잘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탁자를 이용한 꿈은 사례를 일일이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편방과 필획을 분해하여 해석하는 꿈해석 방법, 편방을 결합하여 해석하는 꿈해석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주담』(麈談)의 기록이다. 패공(沛公)이 정장(亭長)이 막 되었을 때, 한 마리 양을 쫓아가 뿔과 꼬리를 잡자 모두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점을 치자, 양(羊)이라는 글자에 뿌리와 꼬리가 없는 것은 왕(王) 자로서, [왕이 될 꿈이라고]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광무제 역시 이 꿈

37) 측자(測字), 파자(破字), 탁자(拆字), 해자(解字)의 의미는 유사하다. 사용하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자의 편방과 필획 등을 분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여 길흉을 점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중에서도 측자(測字)는 점자(占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하곤 했는데, 이 글에서는 꿈해석의 주체를 점자나 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지식인까지 넓히고 있어 중립적인 색채의 '탁자'(拆字)로 통일하여 사용함을 일러둔다.

38) 路英, 『中國式解夢』, 團結出版社, 2010, p.83.

을 꾸었다고 한다.

(『몽점일지』「자획편」)[39]

한(漢)나라 고조 유방(劉邦)이 정장(亭長)이 되었을 때, 이미 왕이 될 것을 예견한 꿈을 꾸었다는 이 꿈은 후한(後漢)의 광무제 유수(劉秀)도 경험했던 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羊)이라는 글자에서 머리와 꼬리를 떼어 왕(王)이라는 글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불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상서로운 의미로 해석되는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漢)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는 매우 짙은 종교색을 가진 신비주의, 주술, 풍수, 관상, 참위 등이 널리 유행하던 시기로, 이러한 것들이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였다.[40] 위의 꿈은 몽자가 실제로 경험한 꿈일 수도 있지만, 제왕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은 그들이 황제가 되는 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몽자의 꿈, 점자의 해석, 이를 믿는 백성들이 있을 때, 이 꿈은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본 꿈 사례가 글자를 더하는 방식이었자면, 글자를 분해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의 꿈 풀이도 있다. 정고의 꿈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록』(吳錄)의 기록이다. 정고(丁固)는 소나무가 배에 생기는 꿈 을 꾸었다. 정고가 잠에서 깨어 사람에게 말해다. "소나무 송은 십팔공이니 나는 18년 후에 공(公)이 될 것이오" 정고는 과연 꿈처럼 되었다.

(『몽점일지』「형모편」)[41]

---

39) "『麈談』曰, 沛公始爲亭長, 夢遂一羊扳角尾皆落. 占曰, 羊無角尾, 王也. 一云, 光武有此夢."(『夢占逸旨』「筆墨篇」)

40) 褚贛生(2008), ibid., p.25.

41) "『吳錄』曰, 丁固夢松樹生其腹上. 謂人曰, '松字十八公, 後十八年當爲公.' 遂如夢."(『夢占逸旨』「形貌篇」)

정고는 꿈을 꾼 당사자이다. 그는 배 위에 소나무가 생기는 특이한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스스로 꿈을 해석하여 18년 후에 공(公)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몸에서 생겨난 '소나무'(松) 글자를 분해한 결과였다. "송(松) = 십(十) + 팔(八) + 공(公)"이라는 스스로의 해석처럼, 그는 결국 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 꿈의 경우, 소나무는 탁자를 통한 해석만을 가지지 않는다. 고대 중국에서 소나무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로서, 군자(君子)적 기질의 상징이기도 했다.[42] 예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고가 공(公)에 오를 정도의 군자적 풍모를 갖추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탁자' 해석은 『몽점일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해석법으로서, 한자의 특성이 잘 드러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3. 해음(諧音)

해음(諧音)은 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해음은 언어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해음현상은 지금까지도 그 형태와 상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음'을 통한 해석방법은 물건이나 상황이 가진 상징성보다는 '음'(音)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인데, 「형모편」과 「기물편」에 소개된 장사직(張司直)과 장첨(張瞻)의 꿈을 각각 예로 들 수 있다. 장사직은 자신이 임신한 꿈을 꾸었고, 장첨은 절구에 불을 때는 꿈을 꾸었다.

> 『보광록』(葆光錄)의 기록이다, 장사직(張司直)이 병들었을 때, 임신한 꿈을 꾸고 매우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엽광원(葉光遠)에게 [꿈을

42) 何躍青, ibid., p.137.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임진일이 되면 나을 꿈입니다. 아이를 가진 것은 임신(妊娠)이니,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임진일이 되자 과연 나았다.

(『몽점일지』「형모편」)[43]

『유양잡조』(酉陽雜俎)의 기록이다. 장첨이 타지에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녁에 자신이 [돌절구를 밥솥으로 삼아] 불을 때는 꿈을 꾸었다. 장첨이 강회(江淮)의 왕생(王生)에게 가서 꿈을 풀이하게 하자, 왕생이 말하였다. "그대는 돌아가도 아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절구에 [밥을 하기 위해] 불을 땐 것은, 솥이 없기 때문인데, 솥(釜)과 아내(婦)는 발음이 같습니다." 장첨이 집에 돌아가 보니, 과연 아내는 죽고 없었다.

(『몽점일지』「기물편」)[44]

남성이 임신을 하고, 남성이 돌절구에 밥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였다. 잠에서 깨어난 이들이 불길하게 생각하여, 꿈해석 전문가를 찾았던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해음을 통한 꿈의 해석은 몽자의 추측이나 불안감과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를 가졌다는 '회잉'(懷孕)은 곧 '임신'(妊娠)이다. 임신(妊娠)은 임진(壬辰)과 발음이 같다. 따라서 남성이 임신한 여성이 된 것, 곧 몽자인 장사직이 꾼 꿈은 몽자의 느낌과 같이 불길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엽광원은 발음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오히려 이를 길몽으로 해석한다. 장첨이 돌절구에 밥을 짓는 꿈도 발음을 근거로 풀이된다. 왕생은 솥(釜)와 아내(婦)의 발음의 유사

43) "『葆光錄』曰, 張司直疾病, 夢懷孕, 甚惡之. 葉光遠曰, '此去遇壬辰日當愈. 懷孕妊娠也, 有大福在也.' 壬辰日果愈." (『夢占逸旨』「形貌篇」)

44) "『酉陽雜俎』曰, 張瞻嘗客外, 將歸一夕, 忽夢炊臼中. 就江淮王生解之. 生曰, '君歸不見妻矣. 臼中炊, 無釜也. 蓋釜婦同音耳.' 瞻歸妻果卒." (『夢占逸旨』「器物篇」)

성에 근거하여, 장첨의 꿈을 '아내의 부재'로 해석한다. 여기에 장첨이 밥하는 일, 즉 장첨이 부녀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내의 죽음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한다.

한자의 해음현상은 꿈해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꿈해석에 있어 몽자의 심리를 반영하며[45], 중국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꿈해석 방법은 앞으로 현대인들의 꿈해석에 있어 다양한 해석방법을 시도하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3.4. 복합해석

꿈의 해석 방법으로 상징, 탁자, 해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둘 이상의 방법이 함께 사용되어 꿈해석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때 꿈은 몽자의 심리나 무의식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미 진사원은 "혼은 미리 올 것을 알고, 백은 지나간 것을 간직한 것"[46]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꿈에 과거가 내장되어 있고 그것이 꿈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면, 중국의 꿈을 통해서도 무의식의 탐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몽점일지』에는 몽자 개인의 현재적 상태, 심리까지 반영되어 있는 몇 가지 꿈이 소개되어 있다. 꿈해석을 위해 상징, 탁자 등의 해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무엇보다 개인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숙(薛叔)의 꿈과 양현(梁顯)의 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설숙은 장량이 산 위에 실을 걸

45) 劉大爲, 「諧音現像的心理機制與言語機制」, 『當代修辭學』(5), 2013, pp.2-8. 劉大爲는 해음은 해석의 유사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까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6) "魂能知來, 魄能藏往" (『夢占逸旨』「眞宰篇」)

어놓는 꿈을, 양현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개고기 한 조각을 건네주는 꿈을 꾸었다.

> 『후위서』(後魏書)의 기록이다. 설숙(薛叔)은 장량(張亮)이 산(山) 위에 실(絲)을 걸어놓는 꿈을 꾸었다. 설숙이 잠에서 깬 뒤 장량에게 [꿈을] 말해주자, [장량이] 점을 친 후에 말하였다. "산 위의 실은 유(幽)자니, 그대는 유주(幽州)에 갈 것이오." [설숙은] 얼마 되지 않아 유주자사에 배수되었다."
>
> (『몽점일지』「산천편」)[47]

> 『이원』(異苑)의 기록이다. 양현(梁顯)이 과거에 응시하기 열흘 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개고기 한 조각을 주는 꿈을 꾸었다. 양현은 [꿈에서 깬 후] 불길한 생각이 들어 술자(術者)에게 물었다. [술자가] 풀이하여 말했다. "조각(片)이라는 글자와 개(犬)라는 글자를 합치면 장(狀)자가 됩니다." [양현은] 과연 장원을 하였다.
>
> (『몽점일지』「자획편」)[48]

이러한 꿈들은 한자의 특징을 살린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현재 몽자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상징성을 뛰어넘은 혹은 상반되는 해석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개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는 고대로부터 인간과 가까운 동물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영계(靈界)에 가까운 동물로 알려져, 저승길을 안내하는 임무가 맡겨져 순장(殉葬)되기도 했다. 반면 개는 매우 불길한 의미도 갖고 있는데, 특히 꿈속의 개는 상서롭지 않게 해석되곤 했다. 『몽점일지』「수군편」(獸羣篇)에는 개와 관련된 몇 개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대체로 불길한 의미를

---

47) "後魏書曰, 薛琡夢張亮於山上掛絲. 覺而告亮, 且占之曰, 山上絲是幽字也, 君其爲幽州乎. 未期而琡拜幽州刺史."(『夢占逸旨』「山川篇」)

48) "『異苑』曰, 梁顯進選前十日, 夢人賜犬肉一片. 顯不悅以問術者. 解曰, 片犬狀字也, 果爲狀元."(『夢占逸旨』「字劃篇」)

내함한다. 왕돈(王敦)은 개에 물리는 꿈을 꾸고 죽었고, 오(吳)나라 부차(夫差)는 검은 개가 달리는 꿈을 꾸고 살해되었으며, 장천석(張天錫)은 푸른 개가 달려드는 꿈을 꾸고 부견(符堅)에게 패하였다.[49] 개고기 조각을 받은 꿈을 꾼 양현의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몽을 부탁받은 술자(術者)는 몽자의 느낌과 먼 해석을 내놓는다. 조각(片)이라는 글자와 개(犬)라는 글자를 합치면 장(狀)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나 '조각'이 가지는 상징성과는 먼 '장원'이라는 상서로움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양현의 꿈은 몽자의 현재적 심리를 잘 보여주면서, 예지적 성격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꿈이라 할 수 있다. 양현이 '개'의 꿈을 꾼 것은, 과거를 열흘 앞둔 수험자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꿈을 꾸고 불길하게 생각한 증동(曾洞)의 꿈도 있다.

> 『건제쇄철록』의 기록이다. 가흥(嘉興) 년간의 증동(曾洞)은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한 어린아이의 오른쪽에 귀가 또(又) 하나가 더 생기더니, 홀연히 두 팔이 없어지는 꿈을 꾸었다. 그는 상서롭지 못하게 여겨, 형인 증추(曾追)에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말했다. 증추가 대답했다. "또(又) 귀(耳)가 생기는 것은, 귀(耳) 옆에 ['또'를 의미하는] 우(又)가 붙은 것이니, 곧 취(取)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린아이(子)에게 두 팔이 없는 것은 료(了)자이다. 생각해 보면 '얻었다(取了)'는 뜻이 분명하다. 과연 꿈처럼 되었다.
>
> (『몽점일지』「과갑편」)[50]

---

49) "왕돈은 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고 죽었다. …… 오나라 부차는 검은 개가 달리며 짖는 꿈을 꾸고, 구천에게 멸망되었다. 장천석은 푸른개가 달려들어 깨무는 꿈을 꾸고, 부견에게 패하였다.(王敦夢 犬噬而喪軀. …… 吳夫差夢黑犬走嗥而滅於句踐. 張天錫夢綠犬偪咋而敗於符堅)" (『夢占逸旨』「獸羣篇」)

50) "『謇齋瑣綴錄』曰, 嘉興曾洞應擧時, 夢一小兒右邊又生一耳, 忽見小兒無兩

증동(曾迵)이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꾼 꿈 역시 다소 불길한 꿈으로 보이기 쉽다. 세 개의 귀를 가진 어린아이, 갑자기 양 팔을 잃은 어린아이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증동이 불안해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시험으로 인한 수험자의 긴장과 불안한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에 나타난 어린아이는 양가적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꿈에 사내아이가 나오면 길하고, 여자아이가 나오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해석하기도 하였고, 백족(白族) 사이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꿈을 꾸면, 돼지나 양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는 믿음이 공유되고 있다.[51]

꿈을 꾼 후 불안했던 증동이 형인 증추에게 꿈해석을 청하자, 형은 '어린아이, 팔, 귀' 등이 갖는 상징성과 거리가 먼 해석을 내놓는다. 그는 사물들이 갖는 글자를 조합하여 '얻었다(取了)'는 의미를 추출해낸다. 현실의 결과도 증추의 해석과 같았다.

양현의 꿈이나 증동의 꿈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모두 과거를 앞두고 꿈을 꾸었다는 것이고, 꿈에 나타난 사물들은 이미 부정적 상징성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의 출현은 시험을 앞둔 수험자의 불안한 심리와 긴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몽점일지』에는 곤경에 빠져있거나,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몽자는 비논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사물과 현상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곤 했다.

고대 중국의 꿈해석을 '점친다, 몽점한다'고 표현했지만, 위의 사례는 이를 보다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手. 以爲不祥, 語其兄追. 追曰, 又添一耳, 耳邊添又, 是取字. 子無兩手, 是了字, 考必取了. 已而果然."(『夢占逸旨』「科甲篇」)

51) 劉文英(2008), ibid., p.141; p.19.

즉, 고대 중국의 꿈을 통해서도 개인의 무의식이나 심리 등을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중국의 꿈은 꿈 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꿈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꿈해석의 열린 가능성

『몽점일지』라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고대의 '몽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꿈 사례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저자인 진사원이 기존의 분류법을 참고하고, 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정리하여 이론과 사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꿈 전문서이다. '몽점' 또는 '점몽'이라는 용어는 이 책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에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진사원은 꿈이 거짓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실존 인물의 꿈 사례를 선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을 비롯하여 『사기』(史記), 『한서』(漢書), 『진서』(晉書), 『당서』(唐書) 등 역사서를 폭넓게 인용함으로서, 꿈의 실재성과 진실성을 강조하였다.[52]

고대 중국에서 꿈은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중요한 것이었다. 주대(周代)만 하더라도 왕의 꿈은 전문 관리에 의해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졌고, 꿈 점의 결과는 정사에 반영되었다. 이후, 진한대(秦漢代)에 이르러 꿈 점이 민간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당시 민간에 유행하던 풍수, 주술, 관상, 팔괘 등과 결합하면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꿈 점은

52) 유강하, 「"어떤 꿈이 참이 아니겠는가?[何夢非眞]"-『夢占逸旨』「內篇」에 드러난 진사원의 꿈 인식 연구」, 『외국학연구』(49), p.261.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발전해갔다. 꿈은 도교(道敎)나 불교(佛敎)와 결합하기도 했고, 매우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요청받기도 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다채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꿈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도 예외 없이 꿈을 꾸기 때문일 것이다.

'꿈점'은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비적 영역에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몽점일지』에는 '꿈점'에 접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 꿈 점을 다루는 전문가인 점자, 점사, 점몽자, 술자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 외에 몽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주위 사람이나 박학다식한 지식인 역시 꿈해석의 주체가 되었다. 「몽점일지』에 소개된 꿈해석은 영역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몽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중국문화의 상징을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으며 '탁자'나 '해음'에 익숙한 지식인에게도 열려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꿈은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는 근거이자, 개인의 심리와 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는 대상이었다.

꿈은 몽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상징문화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텍스트이다. 심리분석과 정신분석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 꿈 연구에 있어 서양의 정신분석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꿈을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몽점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문화는 꿈을 해석하는 고유한 방식을 갖고 있다. 고대 중국의 점몽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는 다양한 꿈해석의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동서양 꿈 비교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成百曉 역주,『詩經集傳(下)』, 傳統文化硏究會, 2007.
이준영 해역,『周禮』, 자유문고, 2014.
陳士元, 김재두 옮김,『夢占逸旨』, 은행나무, 2008.
陳士元,『夢占逸旨』, 中華書局, 1985.

2. 논문

김수영,「中國 諧音民俗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종임,「『夢占逸旨』의 인문학적 의의 : 「古法篇」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65, 2010, pp.577-600.
_____,「전통 시기 중국 문인의 관계 지향-『몽점일지(夢占逸旨)·과갑편(科甲篇)』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79, 2018, pp.239-260.
_____,「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1)」,『中國小說論叢』24, 2006, pp.103-120.
_____,「점몽(占夢)을 통한 현실세계의 이해(2)」,『中國小說論叢』25, 2007, 55-74.
이연희,「六朝時期 占夢文化와 宗敎-六朝 夢幻故事를 중심으로」,『道敎文化硏究』25 , 2006, pp.147-165.
유강하,「"어떤 꿈이 참이 아니겠는가?[何夢非眞]" -『夢占逸旨』「內篇」에 드러난 진사원의 꿈 인식 연구」,『외국학연구』49, 2019, pp.255-280.
조윤래,「『장자(莊子)』와 점몽서(占夢書)」,『道敎學硏究』10-1, 1992. pp.33-49.
최진묵,「중국 고대 夢占의 논리와 그 사회적 기능」,『중국고중세사연구』16, 2006, pp.127-169.
劉大爲,「諧音現像的心理機制與言語機制」,『當代修辭學』(5), 2013, pp.1-18.

3. 단행본

미르치아 엘리아데,『신화·꿈·신비』, 숲, 2006.
에릭 에크로이드, 김병준 옮김,『꿈 상징 사전』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劉文英, 하영삼・김창경 옮김,『꿈의 철학: 꿈의 미신, 꿈의 탐색』, 동문선, 1993

褚贛生, 『中國古代夢占』, 九州出版社, 2008.
何躍青 編著, 『占夢文化』, 外文出版社, 2011.
路英, 『中國式解夢』, 團結出版社, 2010.
姚偉鈞, 『神秘的占夢』, 廣西人民出版社, 2004.
劉文英, 『星占與夢占』, 中央編譯出版社, 2008.

(**투고일**: 2020. 2. 16 **심사완료일**: 2020. 3. 18 **게재확정일**: 2020. 3. 20)

유강하
소 속: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 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312
전자우편: jiangxia@kangwon.ac.kr

[Abstract]

A Study of Ancient Chinese Dream Record *Mengzhanyizhi*

Yu, Kang-ha

This article is a study of *Mengzhanyizhi(夢占逸旨)*, a dream record of ancient China. The ancient Chinese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dreams. They have long sought ways to deal with dreams, had experts for interpretation, and have classified and recorded dreams. Among many dream books, *Mengzhanyizhi*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ext that shows the aspect of ancient Chinese dream records.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divination by means of dreams' and how to interpret ancient dreams. It could be said that the ancient dream interpretation was not interpreted in the realm of sorcery, but in the realm of humanities.

There were dream-tellers who were experts in interpreting dreams, but other people around one wh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dreamer and intellectuals who are knowledgeable have interpreted dreams. Typical ways to interpret dreams are symbolism, disassembly of Chinese characters and homophone. *Mengzhanyizhi* tells us that there was a unique way to interpret the dreams of ancient China. Various and extensive studies of ancient 'dream book'(or 'book of divination of dream') will provide examples of various dream interpretations. Furthermore, it could be presented as a meaningful basis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Eastern and Western dreams.

Key words: *Mengzhanyizhi*, dream, dreamer, dream-teller, dream-interpretation, symbolism, disassemble of Chinese characters, Homophone